교육의원, 순번 추첨이 당락 가르나

추첨순으로 후보 이름 투표지 기재
선거구 넓고 후원회도 못 열어 고심

6·2 지방선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직선제로 선출되는 교육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국회의원보다 넓은 선거구와 정당지원 배제 등으로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18일에야 통과돼 19일로 예정됐던 예비후보 등록일마저 미뤄지게 돼 선거운동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넓은 선거구가 문제다. 교육의원 수는 전국적으로 77명이며, 광주·전남에선 각 4명, 5명 등 9명이 선출된다. 교육의원 선거구의 인구 규모는 평균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의 3배, 시·도의원 선거구의 9배에 달한다.

광주에선 동·남구 1명, 서·북·광산구 각 1명씩이며, 전남에선 1선거구(목포·신안·해남·완도·진도), 2선거구(여수), 3선거구(순천·고흥·보성), 4선거구(나주·영암·무안·영광·함평·장흥·강진), 5선거구(광양·담양·장성·곡성·구례·화순) 등 5개 선거구에 각 1명씩이다.

또 교육의원 출마자 대부분은 선거경험이 없는데다, 광역의원처럼 정당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고, 교육감 후보처럼 후원회도 열 수 없다.

광주의 한 교육의원 출마 예정자는 "선거일까지 10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조직도 없이 유권자에게 얼굴이나 제대로 알릴 수 있겠느냐"며 씁쓸해 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이나 인물·공약 등과 관계없이 '추첨'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정 교육자치법이 '정당 후보'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교육감·교육의원 후보들의 '기호'를 표시하지 않도록 했으나, 후보이름을 추첨 순서에 따라 투표지에 기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2번째로 기재되는 후보가 민주당을 연상시켜 유리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정세균(오른쪽) 대표와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신문기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막대한 선거비용도 큰 부담이다. 교육의원은 선거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선거비용 제한액도 같은 급(級)인 광역의원이 아닌 국회의원에 준하는 '1억원+인구수×100원' 으로 규정돼 있다. 인구규모로 볼 때 광주·전남에선 한 선거구당 1억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정도의 법적 선거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부칙조항에 현 교육위원은 교육경력에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고, 전·현직 교육위원의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토록 해 비교육경력 위원들도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현 광주·전남교육위원 중 한이춘, 민병흥, 유제원 위원 등 3명이 비교육경력자다. /박진표기자 lucky@

"교육계와 협의 교육자치 새 대안 제시"

교과위 김영진 의원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김영진(광주 서구을)의원은 18일 교육의원 선거를 이번만 실시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교육계와 협의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 교육자치가 없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교육자치의 폐지는 국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교육의원 직선제와 교육 경력 5년이 유지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한 데는 김 의원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교육의원 비례 대표제·정당경력 대폭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의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상임위 통과를 유보시킨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자메시지 발송 현의원 측근
광주시선관위, 검찰에 첫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국회의원 측근 A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장 선거 입지자 캠프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다 검찰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용섭 의원 ○○언론사 광주시장 여론조사 지지도 2위, ○○○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 등의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천587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의원의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김장환 글로벌 교육문화 한마당 개최

김장환 전 전남도교육감은 20일 오후 2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글로벌 교육문화 한마당 행사에서 '전남교육의 미래와 희망'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또 이날 행사에선 희망리더십 등의 저자인 공병호씨가 '10년 후 한국과 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별공연으로는 '뽀빠이' 이상용씨의 '웃으며 사는 여유있는 세상'이 열린다.

이형석 정책공약집 출판기념회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이형석 전 청와대 비서관은 23일 오후 3시 북구 양산동 연초제조창(KT&G) 대강당에서 '이형석, 북구를 논(論)하다'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정책공약집으로 출판 기념회를 여는 입지자는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이다.

이 전 비서관은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당당한 구청장으로서 구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경제·교육·환경·문화 등 분야별 정책을 꼼꼼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석원 무안군수 출마 선언

김석원 전남도의원은 18일 무안읍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안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젊은 열정으로 무안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내겠다"며 "군정을 맡게 된다면 농촌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기 목포시장 출마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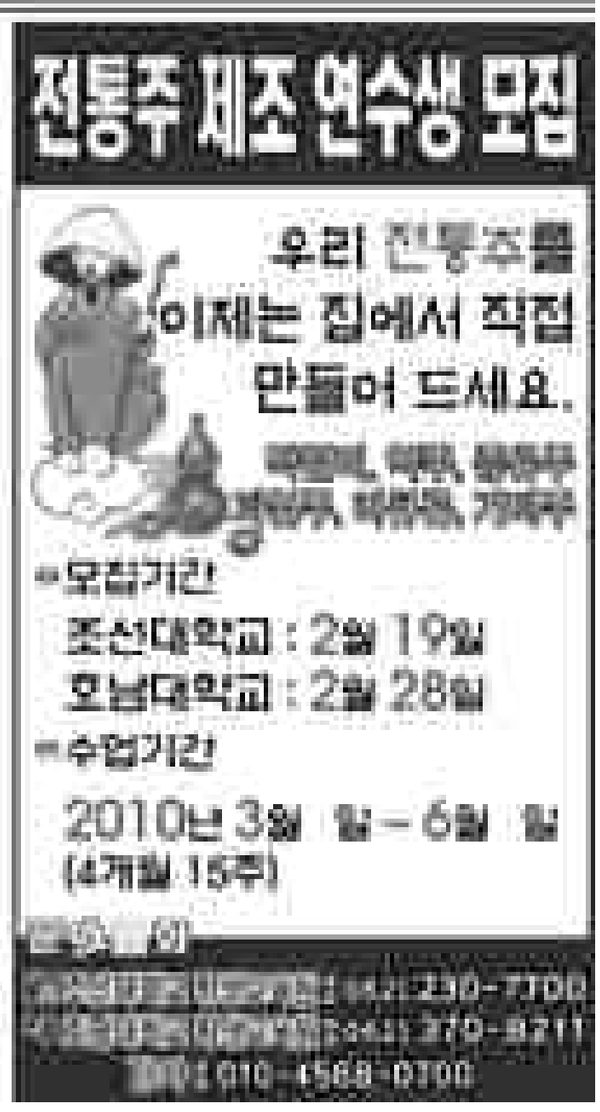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18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최근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민주당에 입당한 홍 전 청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 세계인이 찾아들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목포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5·18구속 부상자회, 강운태·이용섭 사퇴 요구

(사)5·18구속부상자회 소속 회원 100여명은 18일 오후 광주시 남구 방림동 강운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몰려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경선에 나선 강운태(광주 남)·이용섭(광주 광산을)의원이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부역했다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5·18구속부상자회는 또 "광주학살 부역자를 공천하고 입당을 허용한 민주당은 부역자들을 즉각 출당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